

배포 일시	2022. 8. 26.(금)		
담당 부서	모빌리티정책과 택시정책팀	책임자	팀 장 양찬윤 (044-201-4770)
		담당자	사무관 장상준 (044-201-4756)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택시 호출료 3배 인상(9천원)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.

< 보도내용('22. 8. 25. 매일경제) >

◆ 택시 ‘쿨’ 만 해도 9천원?... 정부 호출비 3배 인상 추진

- 심야 시간대 호출비를 약 3배로 인상하는 ‘탄력 호출비’ 유력하게 검토
- 택시 기사 수입을 늘리기 위해, 호출비의 약 70%를 택시 기사에게 지급 하도록 하는 신규 가이드라인 추진

□ 국토교통부는 당면한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- 다만,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호출료를 3배로 인상(9천원) 하는 안은 검토된 바 없으며,
- 호출료 금액 및 기사 배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, 사실과 다른 내용은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